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9 ~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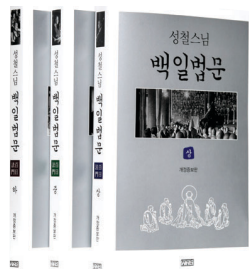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죽장수필	윤서주	불광출판사
2	백일법문 (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7	명공 스님과 애벌레 선	보현	민족사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8	달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흔적 없이 나는 새 (전심범요)	수불	김영사	9	리셋	윌호	마음의숲
5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10	11월간의 특별한 수업	아신 뽀뽀	범승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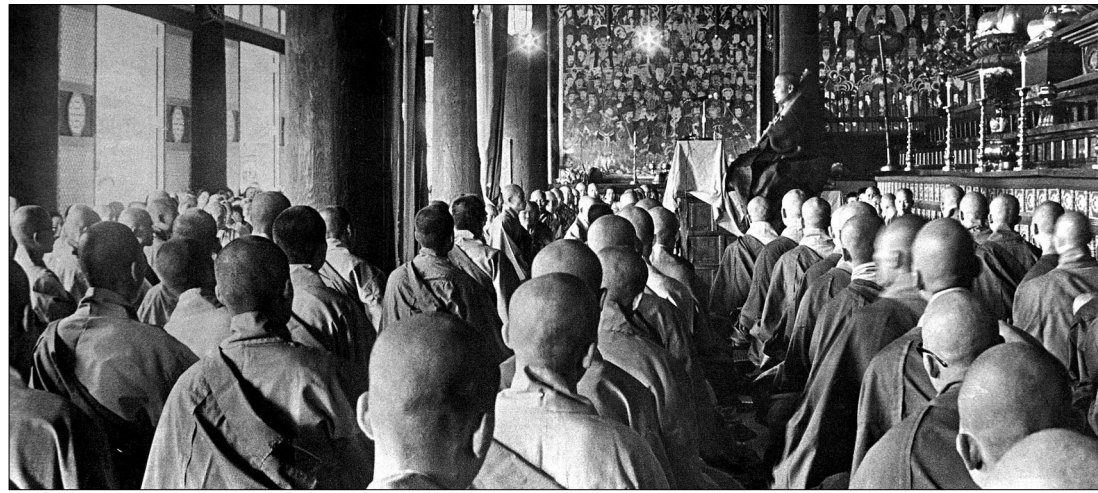
다시 결집한 성철 스님 <백일법문>

성철 스님 백일법문 상·중·하 3권

성철 스님 저음 | 장경각 펴냄 | 1만5천원



성철 스님의 법문집 <백일법문>의 개정 증보판이 출간됐다. 1992년 출간 이래 20만 권 넘게 판매된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총림 방丈으로 추대된 후 그해 첫 동안거를 맞이하여 백일동안 상당법문과는 별도로 대중들을 위해 불교를 총체적으로 강설한 것을 묶은 것이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법문하는 성철 스님

<백일법문> 22년 만에 증보판 나와

초판본 보강, 누락 법문 추가해 세 권으로

근본불교·돈오점수 등 좀 더 자세히 다뤄

원택 스님, "돈오점수 비판 '오해' 있어,

보조국사의 진의 제대로 보라는 뜻"

의 근본불교사상에는 이미 천태, 화엄, 유식의 모든 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의 <백일법문>에는 이 부분이 많이 생략됐다.

중권에 들어간 화엄종, 삼론종의 중도사상 순서에는 변화가 거의 없고, 본래 법상종의 중도사상에 있던 인도의 유식사상은 상권으로 옮겼다. 그러나 천태종의 중도사상은 절의 제목,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의 중도사상을 강설한 중권의 내용은 이전 보다 자세하고 폭이 넓어졌다.

하권에는 중국 선사들이 밝힌 중도의 뜻과 어록이 실려 있으며, 특히 대주해해 선사의 <돈오일도요문론>의 법문이 많이 실려 있다. 중도사상, 선종의 본질, 보조국사의 돈오점수 사상 등이 들어 있는 하권은 내용상으로는 증보가 많으나 순서상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1992년에 발간된 <백일법문>과 비교해 보면, 증보된 내용 이외 절의 순서들이 바뀌고 구어체를 되도록 문어체로 바꾼 것이 증보판의 큰 특징이다. 또 이전 초판본은 교리발달 순서로 편집됐고, 이번 책은 가능한 성철 스님이 법문한 순서에 따라 원음을 최대한 복원했다.

흔히들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에서 보조국사의 '돈오점수'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조국사 말년의 <간화결의론>에 드러난 돈오점수 사상을 살피지 않고 20대 중반에 저술한 <수심결>과 <정혜결사문> 그리고 규봉종정의 돈오점수론에 빠져 보조국사의 진의를 제대로 모른

다고 생각되는 선방수좌들을 경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번 <백일법문>에 드러나 있다. 즉 보조국사가 젊은 시절과 달리 말년에 사상적으로 변화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초기의 돈오점수에만 매달리는 일부 선방 수좌들을 질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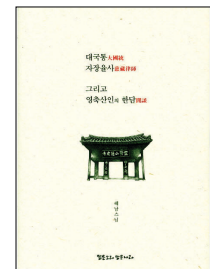
이번 개정증보판 발간과 관련해 원택 스님은 "1967년 동안기 때 해인 법문을 25년 만에 정리해 1992년 <백일법문> 상·하 2권으로 출간했고, 이제 다시 법문을 정밀 녹취해 '개정증보판 백일법문'이라는 마음으로 47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지금, 감개 무량함에 앞서 성철 큰스님께 크게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보조국사가 열반에 드신 지 6년 만에 제자인 진각 국사가 유고(遺稿)를 정리해 <간화결의론>을 출간, 보조사상을 총괄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큰스님이 법문하신 지 50여년 만에야 겨우 형태를 갖춘 <백일법문>을 출간하게 됐으니 큰스님께 어떤 참회를 올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큰스님께서 '부처님 법값 했다'고 표현하신 <본지풍광>, <선문정로>의 사상을 세상에 올바르게 알리고 전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고 출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예전에 <백일법문> 초판본을 읽었던 많은 독자들에게는 "증보판은 이전 서술방식을 따르는 동시에 누락된 내용을 보충, 증보한 책이다."며 앞서 발행된 <백일법문>의 가치와 의미에 의심을 갖지 말 것을 당부했다.

원택 스님은 이번 개정증보판 출간에 즈음해 선종사상이 정리된 <백일법문> 하권 2500권을 동안거 결제를 진행하는 전국 선원에 법보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조계종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12월 11일부터 2015년 3월까지 '백일법문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문의 1661-1108)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자장율사의 업적과 세간을 향한 율사의 한담

대국통 자장율사 그리고 영축산인의 한담

해남 스님 저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3천원



"내 차라리 계를 지니고 하루를 살다가 죽을지언정 파계하고 백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계를 목숨보다 중시했던 신라 대국통이자 대표적 율사인 자장율사의 업적을 기린 책으로, 저자는 통도사 전계사이자 율주인 중산 해남 스님이다.

백골관을 닦아 수행하는 힘이 가피로 드러난 자장 스님은 대중의 신망을 얻어 재상의 물망에 올랐다. 왕이 자주 스님을 불렀으나 나이가지 않자 왕이 크게 진노하여 조칙으로 스님의 목을 칼로 베려했다. 자장 스님이 위와 같이 말하니 사자가 감히 스님을 베지 못하고 임금께 아뢰었다. 왕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장 스님의 신심에 감복하여 도업을 도왔다 했다.

자장 스님은 엄격하게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은 율사로 알려 있다. 스님은 당나라에 가서도 수많은 사람을 교화하여 당태종의 존경을 받았고, 귀국한 다음에는 황룡사에 구중탑을 세웠고,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을 설립하여 호국, 호법에 노력하여 승단 내부로는 교단을 정화하고 승규를 쇄신하여 승리의 기강을 확립했다.

저자인 해남 스님은 "통도사 사격의 바른 이해를 위해 대국통 자장율사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책은 자장율사의 가계와 출생, 생몰연대, 어린 시절, 출가, 입당과 유학 등 자세한 스님의 생애를 정리했다. 또한 자장율사가 조성한 통도사의 계단과 법화당 등을 소개하며 통도사의 의미와 유래를 되짚어줌으로써 통도사와 자장율사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책은 크게 전반기, '대국통 자장율사'와 후반기 '그리고 영축산인의 한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기에서는 위와 같이 자장율사의 생애를 만나 볼 수 있으며 후반기 '그리고 영축산인의 한담'에서는 해남 스님의 칼럼을 만나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축산인 한담'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남 스님이 불교신문에 기고했던 칼럼이 실려 있는데 2009년 미국의 월가 금융사기 사건, 추기경의 선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2010년 아이티 지진, 2012년 총림지정 등 불교계의 소식은 물론 세간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해남 스님의 의견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박재원 기자

근본불교의 비구니 계율 경전 첫 한글 번역서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한역 의정 | 보은 스님 국역 | 해안 펴냄 | 3만8천원



책은 인도 근본불교에서 비구니 승단이 지켜야 할 계율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필추니'는 '비구니'를 가리키는 용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불교의 율장 중에서 이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는 독

립적으로 비구니 율장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을 포함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는 인도불교의 유파인 설일체유부가 새로운 사상을 정립한 뒤에 완성된 율장으로서, 인도에서 가장 발달된 부파불교에서 수지·수행하며 연구했던 율장이다. 이것을 중국 당나라 의정(義淨) 삼장법사가 한역(漢譯)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이번에 처음 우리말로 번역, 간행한 것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는 필추의 바라제목차인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50권과 필추니의 바라제목인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20권, 건도는 <출가사> 4권, <안거사> 1권, <수의사> 1권, <피

혁사> 2권, <갈치나사의> 1권, <약사> 18권, <잡사> 40권, <파승사> 20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다시 갈마본인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10권과 바라제목차를 간추린 <근본설일체유부계경> 1권,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계경> 1권 등이 더해지고, 율장의 해설서인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목득가> 10권 등과 계승을 간추린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나타나목득가> 1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1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1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3권 등 전체 183권으로 구성된 율장이다.

'제1권'에서는 율장이 삼장(三藏) 중에서 으뜸으로, 계율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최상의 복락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대가섭의 출생과 출가, 세존과의 만남과 수행을 서술함으로써, 대가섭을 통해 부처님 법맥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제2권'에서는 여덟 가지의 바라시가법 가운데 율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제3권'에서는 투도, '제4권'에서는 살인과 대망어에 대하여, '제5권'과 '제6권'에서는 20승가별시사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7권'부터 '제11권'까지는 서른세 가지 니살기바 일저가법에 대하여, '제12권'에서 '제17권'까지는 180바일저가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17권'에서 '제19권'까지는 필추니의 바라제목차를 해석하고 있으며, '제20권'에서는 바일저제사니법과 중학법, 그리고 7별쟁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책은 필추니승가의 율법에 대한 한역서로, 필추니들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 조항을 따라 실천하여야 수행을 올바르게 닦을 수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필추의 조건이 율장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누구나 다 아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 문문사 일진 스님이 잔잔하고 섬세한 필치로 해석하는 그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번역가로 전업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일진 스님은 1970년 제석(在錫)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8년 월하(月下) 화상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였다. 1978년 동국대학교 승가학과와 운문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 1985년 법계명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외래강사,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2004년부터 현재 단일계단 갈마위원 교수사, 2010년 운문사 주지, 제15대 조계종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최고의 비구니 수행도량인 운문사에서 학인 지도와 지역불교에 전념하며 한국불교에 희망의 주춧돌을 놓고 있다.



민중사 | 출판부 | 서울로 81 | 부산위파빌리온 1131호 |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 053-02-10945 (예금주: 윤재승)